

# 목포대, ESG 기반 지역 연계 다양한 공공봉사 모델 입증

목포대가 전남지역사회 공헌과 지속 가능한 자원봉사활동을 인정받아 '2025 전남도 자원봉사대회'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11일 목포대에 따르면 대학은 최근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2025 전남도 자원봉사대회'에서 지역사회 공헌과 지속 가능한 자원봉사 활성화 기여도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에 선정돼 현판을 수여 받았다.

전남도가 주최하고, 전남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과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기관 등을 발굴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목포대는 그동안 지역과 연계한 공공

##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최우수기관 선정 사회적 책임·자원봉사 활성화 등 고평가

봉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 실현에 앞장서 왔다. ‘전남 지역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 및 정서 지원 멘토링’, ‘섬·연안 환경정화 및 ESG 기반 지역 연계 봉사활동’, ‘전남도립대와의 연합 봉사 추진’, ‘해외봉사단을 통한 글로벌 사회공헌 확대’ 등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했다.

특히 올해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연합봉사로 도서 지역에서 ‘ESG 친환경 로컬 프로그램’, ‘아동권

리 인식 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권리 교실’ 등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오명호 목포대 학생취업처장은 “지역에서 세계로, 다시 지역으로 이어지는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공공봉사 모델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학생들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주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



국립목포대학교는 지난 10일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2025 전남도 자원봉사대회'에서 지역사회 공헌 및 지속 가능한 자원봉사 활성화 기여를 인정받아 우수 기업(기관)으로 선정, 현판을 수여 받았다.

## 화순전남대병원 ‘의료데이터 안심활용센터’ 개소

### 데이터 기반 연구 플랫폼 구축 지역 연구역량 강화 적극 지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최근 ‘의료데이터 안심활용센터’가 개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소식에는 민정준 병원장과 김형석 의생명연구원장을 비롯해 염민성 한국보건 의료정보원 원장, 정집민 데이터활용지원사업단 단장, 최동우 국립암센터 데이터활용팀장, 류재준 아이티아이즈 부사장 등 관계 기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최근 ‘의료데이터 안심활용센터’의 개소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는 의료데이터 활용 절차 안내와 연구 지원 프로그램 소개가 이뤄졌으며, 안전한 데이터 기반 연구 활성화

를 위한 다양한 의견도 논의됐다. 의료데이터 안심활용센터는 민감한 의료데이터를 외부 반출 없이 분석할 수 있

는 보안 전용 공간이다.

연구자와 기업이 병원의 임상·진료 데이터, 공공 보건으로 빅데이터, 국립암센터 암 빅데이터(K-CURE) 등을 활용해 AI 모델 개발, 임상 연구, 정책·통계 분석 등 다양한 데이터 기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인프라 설계부터 보안 체계 구축, 연구자 지원 프로그램 마련까지 기반 조성을 주도해 왔으며 앞으로 데이터 활용 지원, 교육, 품질관리 등 센터 운영 전반을 담당할 계획이다.

민정준 병원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환경은 미래 의료 경쟁력의 핵심이다”며 “지역 연구자들이 수준 높은 데이터를 활용해 의미 있는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

## 조선대, 벤처창업진흥 유공포상 ‘대통령표창’ 수상

### ‘벤처창업 민간 생태계 조성’ 단체 부문서 영예

조선대학교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5 벤처창업진흥 유공포상’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며 창업 생태계 선도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이번 포상은 벤처창업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의 공로를 국가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상식은 지난 10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조선대는 이번 유공포상에서 ‘벤처창업 민간 생태계조성’ 단체부문 수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조선대는 그동안 581개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며 지역 창업 생태계 허브 역할을 수행해 왔다. 대학 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창업 친화적 인사 및 학사 제도 구축·운영을 통해 대학 주도 창업 활



성화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창업보육센터 보육·졸업 기업의 매출 증가율이 235% 이상, 고용 증가율이 35%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해 왔다. 이와 함께 메이커스페이스(전문랩) 운영을 통해 지역 거점 메이커 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김춘성 총장(사진)은 “지역 창업 생태계는 미래 산업 경쟁력과 청년 인재 양성을 함께 이끄는 핵심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창업의 중심 허브로서 지속가능한 혁신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 한국언론진흥재단, 추위 속 신문배달원 지킨다

### 공동배달센터·신문배달 종사자 2239명에 방한용품 지원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은 11일 전국 공동배달센터에서 근무하는 신문배달원들의 겨울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 신문배달원 방한용품 지원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언론진흥재단은 매년 신문배달원들에게 방한용품 지원과 함께 공동배달센터 재산보험 등을 제공하며 필수노동자의 안전과 근무 여건 향상에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다.

올해 지원은 전국 192개 공동배달센터 2239명의 배달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겨울철 새벽 배달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손난로, 발가락용 핫팩, 귀마개 등 3종 방한용품이 전달됐다.

이번 지원 규모는 2024년 전국 공동배달센터 현장점검 결과를 반영해 최신화된 운영 현황을 기반으로 산정됐다.

김효재 이사장은 이날 전주북부 공동배달센터를 직접 방문해 방한용품을 전달하고, 배달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과 애로사항을 들었다.

김 이사장은 “배달원 여러분의 노고에 늘 감사드리며, 겨울철 작업 환경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기를 바란다. 재단은 앞으로도 현장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꼼꼼히 살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방한용품 지원 외에도 공동배달센터 임차보증금 지원,



한국언론진흥재단 김효재 이사장(왼쪽)이 11일 전주북부 공동배달센터에서 방한용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언론진흥재단

재산·화재보험 가입 지원 등 필수노동자 보호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광주 경쟁력있는 예술 단체 발굴에 힘쓸 것”

### 김성중 단장, 시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심사위원 위촉

“광주시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심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 공정하게 광주를 대표하는 경쟁력있는 예술 단체를 발굴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비영리예술단체인 광주시티문화예술단 김성중 단장이 최근 광주시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광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라 전문 예술법인·단체 지정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김 단장은 앞으로 2년간 광주시 전문 예술법인·단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김 단장은 “전문예술단체 지정을 통해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전문성 있는 예술 단체들이 꾸준히 성장해 광주의 예술



발전과 K-컬처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성중 단장은 송원대 실용예술학과 교수, 광주문화재단 전문문화예술축제 감독을 역임하고 광주시 문화콘텐츠진흥위원회의 위원, 광주시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위원, 광주시 체육성원회의 위원 등을 수행해왔다. 2018년부터 문화예술단을 설립해 지역 대표 인물을 조망하고 알리는 문화예술콘텐츠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사단법인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IAAE)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AI와 예술의 ‘윤리적 사용 기준’을 제시하는데도 앞장서고 있다.

정재경 기자 view2018@



사단법인 빛고을예술단은 최근 광주 남구 앙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남구자원봉사센터에서 ‘2025 은기 담은 사랑의 떡국떡 나눔’ 2차 행사를 개최했다.

## 빛고을예술단 ‘사랑의 떡국떡’ 나눔 눈길

### 남구 소외계층 570세대 전달

사단법인 빛고을예술단은 최근 광주 남구 앙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남구자원봉사센터에서 ‘2025 은기 담은 사랑의 떡국떡 나눔’ 2차 행사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다. 남구자원봉사센터, 빛고을예술단, 자원봉사자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사랑의 떡국떡 600kg(450만원 상당)은 남구 내 소외계층 570세대에게 전달됐다.

빛고을예술단 관계자는 “떡국떡 나눔이 취약계층에게 위로가 되고 겨울을 나는데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빛고을예술단은 20여년 전부터 서구자원봉사센터와 남구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떡국떡이나 연탄 등을 전달하고 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한화솔루션이 11일 지역사회 공헌사업의 일환으로 3500만원 상당의 김장김치 1085박스를 여수시에 기탁했다.

## 한화솔루션 ‘김장나눔’으로 사회공헌 동참

### 김장 1085박스 기탁

여수산단 내 한화솔루션이 11일 지역사회 공헌사업의 일환으로 3500만원 상당의 김장김치 1085박스를 여수시에 기탁했다.

이날 망마경김장에서 열린 후원증서 전달식에는 안인수 한화솔루션 부사장, 정기명 여수시장, 정철섭 여수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과 신미경 부위원장, 김진우 여수시노인복지관장, 자원봉사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기부된 김장김치는 ‘행복한 나눔냉장고’ 13곳을 비롯해 17개 섬 지역 250세대, 농어촌지역 독거노인 510세대에 전달돼 취약계층의 겨울철 식생활 지원에 활용된다.

안인수 한화솔루션 부사장은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자 이번 나눔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함께 나누는 마음이 지역 곳곳에 전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 본부는 최근 광주 북구에 위치한 애육원에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을 설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회공헌은 지역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사업의 하나로, 시설 내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본부는 애육원에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모래놀이터와 탁구대를 설치했다.

또 아동용 자전거, 야구글러브 등 스포츠 용품을 기부했다.

이영희 건강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장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건강



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